

의안번호	제900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민족의 등불, 보재 이상설 선생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상향 촉구”

제안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2025년 3월 21일

#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민족의 등불, 보재 이상설 선생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상향 촉구”

의안 번호	900
----------	-----

제안연월일 : 2025년 3월 21일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 1. 주 문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보재 이상설 선생의 위대하고 다양한 독립운동이 그 위상에 맞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건국훈장 ‘대통령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의 서훈 등급을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2. 제안이유

- 보재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에 맞서며 고종 황제의 밀지를 받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독립운동의 선구자이며, 민족교육기관 ‘서전서숙’을 설립해 인재 양성에 힘쓰셨음
- 191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5년 앞서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는 등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으나 서훈 등급 ‘대통령장’으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헤이그 특사의 부사였던 이준 열사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것과 달리 정사였던 이상설 선생은 ‘대통령장’에 머물러 있어, 이는 역사적 평가의 불균형을 보여주며,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 바로 이상설 선생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위상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부가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164만 충청북도민의 의지를 담아 이상설 선생의 공적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서훈 등급을 상향하고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함

3. 보내는 곳: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한민국 국회(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국가보훈부장관

4. 붙임: 건의안 1부

#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민족의 등불, 보재 이상설 선생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상향 촉구”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별빛처럼, 국권 상실의 암흑기에 민족의 길을 밝히셨던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이상설 선생의 위대하고 다양한 독립운동이 그 위상에 맞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건국훈장 ‘대통령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의 서훈 등급 상향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 잇힌 위대한 공적

보재 이상설 선생은 1870년 진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격변하는 역사의 물결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분연히 일어나 다섯 차례에 걸쳐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조국을 등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독립의 꿈을 이어가셨습니다.

선생께서는 단순한 독립운동가를 넘어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각자로서, 1906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교육이야말로 독립의 근본임을 깨달으신 선생의 혜안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1907년, 고종 황제의 밀지를 받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어 국제사회에 일제의 불법적 침략을 알리고자 하셨던 선생의 용기와 결단은, 비록 당시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세계만방에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천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후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의 국제화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1914년 선생께서 수립하신 ‘대한광복군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보다 5년이나 앞선 최초의 망명정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새 지평을 연 역사적 전환점이었으나, 그간의 서훈 과정에서 이 중대한 업적이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 **역사적 평가의 불균형**

가슴 아픈 것은, 헤이그 특사에서 정사(正使)였던 이상설 선생은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머물러 있는 반면, 부사(副使)였던 이준 열사는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역사적 평가의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의 숙제입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안중근 의사께서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상설이다. 이범윤 같은 의병장 1만 명이 모여도 이 한 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이상설 선생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증명하는 귀중한 증언입니다.

##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간곡한 요청**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부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통해 독립운동 공적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

에서, 우리는 이상설 선생의 숭고한 공적이 마땅한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설 선생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인물을 넘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거목이자 민족교육의 선구자, 그리고 최초의 망명정부를 수립한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선생의 이러한 다면적이고 선구적인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고, 후세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의 서훈 등급 상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훈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억 계승하는 국가적 사명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생의 숭고한 희생이 올바르게 평가받는 날, 우리 민족의 정신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청북도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을 ‘대한민국장’으로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 「상훈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충청북도의회